

#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성명서안

의안 번호	226
----------	-----

제출년월일 : 2016. 5. 20.

제 출 자 : 장문혁 의원

- 제안이유 :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의 비공식적인 사업추진에 따른 당초 설계대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평창군의회 의결을 얻어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1.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올림픽 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한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대내외에 공표 요구
  2.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 시설 축소 건립 취소와 즉시 예산편성 요구
  3.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당초 설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
  4. 평창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하여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5. 당초설계대로 미 추진시 군민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

-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따른 -

# 성명서

2018평창동계올림픽은 지난 2011년 7월 7일 온 국민들의 염원으로 3번의 도전끝에 이루어낸 쾌거이자 평창군민들의 희망과 꿈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올림픽 유치이후 정부의 그간 올림픽 준비과정을 살펴보면 SOC사업 등 각종 사업의 축소추진 논란, 개·폐막식장 변경 추진 논란, 올림픽 분산개최 논란 등 올림픽 준비에 따른 끊임없는 논란의 제공으로 지역주민간 갈등과 분열을 조장해 왔으며,

평창·진부역사 올림픽지원시설 축소라는 또한번의 논란으로 우리군민을 실망시키는 중앙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1년 9개월 남은 시점에서 평창·진부역이 올림픽 직접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당초 설계와는 다른 올림픽지원시설(홍보관, 안내시설, 응급치료실 등)을 제외한 채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와같은 사업의 추진은 올림픽의 성공개최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올림픽 개최의 궁극적인 목표인 후손에게 남겨줄 올림픽 유산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간이역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우리 평창군의회에서는 지역주민도 모르게 추진되고 있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을 추진하는 중앙정부의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의도에 5만여 평창군민과 함께 경악을 금치 못하며,

개최도시의 명예와 자존심을 걸고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아래와 같이 발표한다.

1. 정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올림픽 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한 의혹을 한점도 빠짐없이 대내외에 공표할 것을 요구한다.
2. 정부는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의 취소와 즉시 예산편성 할 것을 요구한다.
3. 정부는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한 미래유산으로 남을 수 있도록 당초 설계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와같이, 평창군의회는 군민들의 뜻을 모아 원주~강릉 복선전철구간의 평창·진부역사의 올림픽지원시설 축소 건립에 대하여 절대불가 입장을 밝히며, 당초설계대로 미 추진시 군민모두와 함께 공동으로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6. 5. 20

평 창 군 의 회